

# 『주역』 임괘(臨卦) “팔월(八月)”에 대한 조선과 중국의 삼정(三正)과 12벽괘(辟卦) 논란

조희영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한국철학(주역) 전공  
hyc00@hanmail.net

- I. 문제제기
- II. “팔월”에 대한 중국의 관점
- III. “팔월”에 대한 조선의 관점
- IV. 맺음말: 삼정과 12벽괘 사이

## I. 문제제기

유가 서적에 나오는 월건(月建)과 정삭(正朔)이 삼정(三正: 夏殷周 三代의 曆法-이하 周曆, 殷曆, 夏曆이라 함)<sup>1)</sup> 중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는 책마다 달라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이 책의 정월로 저 책의 정월을 보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sup>2)</sup> 삼대가 동지(冬至)를 자월(子月)로 보는 것은 같지만 주력(周曆)은 자월을 정월 봄으로 보고, 은력(殷曆)은 축월(丑月)을 정월 봄으로 보고, 하력(夏曆)은 인월(寅月)을 정월 봄으로 보아 각 1개월씩 차이가 난다. 동지의 경우 주력으로는 정월(1월)의 봄에 해당되고, 은력으로는 12월, 하력으로 11월의 겨울에 해당되니 하력이 주력보다 천시와 농기(農期)에 더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역』의 경우는 어떠한가? 『주역』 경문에 달(月)이 표시된 때는 상경 19번째 괘인 지택임괘(地澤臨卦, ䷒) 괘사 “지우팔월유흉(至于八月有凶)”<sup>3)</sup>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팔월’(이하 ‘8월’로 함)이 삼정의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중국 후한대(後漢代)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논란은 삼정뿐 아니라 다른 요인이 더해져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그 요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삼정과 12벽괘(辟卦)의 책력 차이이다. 삼정과 12지월(支月)은 선진시대 이전에 존재했지만 12벽괘설은 전한대

1) 月建이란 초저녁 북두칠성의 6-7번째 별(斗柄, 斗建, 斗杓라 함)이 하늘에서 12주를 가리키는 방향을 그달의 월로 삼는 것이니 12지와 12월을 두건의 방향에 따라 짝 맞추어 월을 정하는 것(月建)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건이 正北 子方을 가리킬 때 冬至 建子之月이라 한다. ‘建子(之)月’은 ‘자월’로 새긴다. 이 월건법의 유래는 『대대례기』 「夏小正」편이다. 先秦 이전부터 ‘三正論’이 있었다. 즉, ‘夏正建寅人正, 殷正建丑地正, 周正建子天正’으로 하은주 삼대의 정월(正朔) 紀月法이다. 漢 무제 7년(BC 107년)에 夏曆으로 통일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三正은 三統과도 의미가 통한다. 삼통은 人統·夏正, 地統·殷正, 天統·周正이다. 三統論의 시원은 董仲舒(BC 179-BC 104)이다. 동중서의 三統論은 국가의 흥망은 三統(黑統, 白統, 赤統)의 순환 반복이라는 이론이다. 夏나라는 흑통이며, 殷나라는 백통, 周나라는 적통이다. 지금의 삼통론은 동중서의 흑·백·적통은 빠지고 天·地·人統으로 대체된 것으로 이는 유홍(劉歆, ?-23) 때부터이다. 유홍은 ‘三統曆’을 지었는데 여기서 “三統이란 天, 地, 人을 가리킨다”고 했다. 『漢書』 「율력지」는 “三統者 天施 地化 人事之紀也”라 했다. 이 삼정삼통론이 송대에 와서는 소강절의 『황극경세서』 「원회운세」편에 天地人의 시작에 “天關於子, 地關於丑, 人生於寅”으로 변용되고 이를 주희는 『논어집주』에서 “行夏之時”의 주석으로 인용한다. 삼대 역법은 夏曆=夏正=人統(흑통)=人正, 殷曆=殷正=地統(백통)=地正, 周曆=周正=天統(적통)=天正으로 통용된다.

2) 공자는 『논어』 「위령공」에서 하력(夏曆)을 행한다고 했고(子曰 行夏之時), 『춘추』나 『맹자』는 周曆을 사용했으며 『시경』이나 『서경』은 주로 夏曆을 사용했다. 따라서 『춘추』에 나오는 달과 시절로 『시경』의 시절을 보면 맞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前漢代) 맹희가 처음 주장한 이론으로 이후 중요한 역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12벽괘를 하력으로 월을 정하였다.<sup>3)</sup> 따라서 기존의 삼정의 세 가지 역법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삼정과 12벽괘의 기월법(紀月法)의 불일치가 『주역』에서 삼정 논란을 복잡하게 만든 첫 번째 요인이다. 두 번째 요인은 한당(漢唐)을 거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송대에 들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여러 설을 공존하게 한 것이다. 그러자 주희 문도들이 여러 설을 제기하여 논란이 종식되지 못하였다. 논란의 양상을 보면, '8월'을 12벽괘와 같은 하력으로 봐야 한다는 설이 있고, 또 『주역』이 주나라 역이므로 주력이라는 설과 문왕 때는 은대이니 은력이라는 설이 있으며, 다른 역리(易理)<sup>4)</sup>로 봐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이러한 논란은 그대로 조선에 유입되었다. 중국에서의 논란을 알고 있는 조선에서도 여러 학자가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논의는 좀 달랐다. 즉, 송대의 논란이 재현되는 흐름과 함께 조선 학자의 상당수는 삼정이나 12벽괘보다 음양사상에 충실하려고 했다. 조선의 역학은 중국에서 유래했지만 임괘(䷗) '8월'과 같이 『주역』의 예민한 부분, 즉 역(易)과 역(曆)이 공존하는 부분에서는 독자적인 조선의 역학사상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런 부분은 연구하여 조선의 역학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계에서 삼정과 12벽괘의 관계를 논하거나 이에 대한 조선과 중국의 상이점을 논한 연구를 거의 볼 수 없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촉발되어 조선으로

3) 12辟卦(12消息卦라고도 함)는 前漢의 맹희가 제출했다. 맹희는 夏曆만으로 12벽괘에 달을 배정했다. 왜 하력인가? 주석 1)처럼 당시는 하력으로 책력을 통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벽괘론은 이후 京房에게 이어져 漢易의 핵심이 되었고, 宋代와 조선에도 12벽괘를 하력으로 수용했다. 12벽괘는 卦氣說의 주요 내용의 하나이고, 괘기설은 『易緯稽覽圖』에서 유래했다. 12벽괘를 보면, 64괘에서 동서남북은 震兌離坎 4정괘에 배당하고 나머지 60괘를 辟·公·卿·大夫·侯 등 5계급에 각 12괘를 배분한다. 12辟卦란 이 5계급 중에서 최상위로 1년의 12달을 64괘에서 음양이 순차적으로 消息하는 12괘를 선정하여 12달의 군주(辟)에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용은 표1과 같다. 괘기설의 나머지 내용은 易卦로 1년 절기의 변화를 말하면서 64괘 384효를 1년의 4계절, 12월, 24절기, 72후에 배당하는 것과, 辟는 地6, 候는 天5로 괘마다 6日7分(1일=80분. 60괘×6일+60괘×7분=365일 1/4일)을 배당한다는 내용과, 中孚卦(䷛)를 동지 初候에 배당하여 1년 절기의 시작으로 삼는 것 등이다. 이는 律曆을 易卦에 대입한 것이다. 12벽괘설은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학자가 수용하지만 王夫之와 같은 학자는 배척한다. 呂明春 외 2인 공저,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예문서원, 2004), 176-181쪽; 朱伯崑著, 『易學哲學史』 1권(北京: 群倫출판사, 2009), 129-139쪽; 王夫之撰, 이일훈 점교, 『周易內傳』(北京: 九州出版社, 2004), 140쪽.

4) 證과 월수나 爻數, 복괘와 日月, 방위, 「설괘전」과 「잡괘전」의 의미 등이다.

표1-삼정과 12벽과 일람표

구분	子 (冬至)	丑	寅	卯 (春分)	辰	巳	午 (夏至)	未	申	酉 (秋分)	戌	亥
周正建子 爲天正 (天統)	正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殷正建丑 爲地正 (地統)	12月	正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夏正建寅 爲人正 (人統)	11月	12月	正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2辟卦 (夏正 基準)	☱ 復	☵ 臨	☳ 泰	☰ 大壯	☲ 夬	☰ 乾	☱ 姤	☴ 遯	☷ 否	☶ 觀	☱ 剝	☷ 坤

이어진 『주역』 임괘(☱) '8월'의 해석에 나타난 삼정과 12벽과의 논란을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입장을 본 다음 조선조 학자들을 분석한다. 이어서 이런 논란을 통해 조선조 역학사상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sup>5)</sup>

## II. “팔월”에 대한 중국의 관점

임괘의 '8월'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중국의 관점은 대부분 월을 세는 기산점에 따라 삼정의 12지월(支月)과 12벽과를 배분하는 것이었다. 앞서 말했듯 삼정과 12지월이 먼저 나오고 12벽과는 뒤에 나왔지만 12벽과 개념이 수용된 뒤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아래에서 시대별 몇몇 학자의 견해로 중국의 관점과 경향을 고찰한다.

5) 이 글의 저본으로 중국 측 자료는 학민문화사(2008) 『주역』(『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 庚辰新刊內閣藏板-이하 『대전』이라 함)과 『사고전서』 전자판을 중심으로 했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저술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6) 간행 『한국경학자료집성(韓國經學資料集成)』 「易經」편 上下 37책(이하 『집성』이라 함)에 수록된 것을 따랐다. 역학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역의 저작 문제(선후천역, 패시는 文王, 효사는 周公, 십익은 孔子 저작) 등은 宋易, 특히 소강절과 程朱의 관점을 따랐다. 본문에서 『대전』이나 『사고전서』 및 『집성』을 인용할 경우 원문만 기재하고 권수(卷數)나 쪽수는 생략한다.

## 1. 한대(漢代)의 관점

경방(京房, BC 77-BC 37)과 정현(鄭玄, 127-200) 및 우번(虞翻, 164-233)과 순상(荀爽, 128-190)의 입장을 통해 당시 '8월'을 보는 관점을 살펴본다. 먼저 경방의 관점이다. 그의 저서 『경씨역전(京氏易傳)』을 보면 건괘(乾卦, ☰)에서는 “자월에 잠룡을 일으킨다, [11월 동지에 1양이 생긴다:(建子起潛龍, [十一月冬至一陽生])”라 했다. 여기서 자월에 잠룡을 일으킨다는 말과 11월 동지 1양이 생긴다는 말은 건괘 초효 ‘잠룡’은 복괘(復卦, ☱)에 해당하고 이는 자월 동지로 11월이라는 뜻이다. 자월 동지를 11월로 보니 경방은 12벽괘에 대해서는 하력의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괘(臨卦, ☷)에서는 “8월에 이르러 흥하다, [축월에서 미월까지이다] [...] [8월에 이르러 돈괘(遯卦, ☶)로 들어간다:(至于八月凶, [建丑至未也] [...] [至於八月入遯])”라 했다. 이 말은 임괘는 축월이고 ‘8월’을 미월(未月)로 보는데 표1에서 보듯 이는 주력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8월에 돈괘로 들어간다’에서 돈괘를 8월로 보는 것에서 주력의 입장임이 다시 확인된다. 즉, 경방은 12벽괘는 하력의 입장이고 ‘8월’에 대해서는 주력의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삼정과 12벽괘의 어긋남이 논란거리가 아니고 삼정 자체를 논하지 않는 점이 후한과 다른 점이다. 정현은 다음과 같이 임괘에 대해 말했다.

임괘는 축월이 용사하니 은나라의 정월(1월)이다. 문왕 당시 주왕(紂王)이 무도(無道)하므로 이 괘로 은나라 흥쇠의 경계를 드러내고자 은력의 수를 주력으로 개정하여 나타내 말했다. 임괘는 주력 2월에 용사하여 7개월을 거쳐 8월에 이르러 돈괘로 받는다.<sup>6)</sup>

정현은 임괘는 축월로 은나라 정월이지만 문왕 당시 주왕(紂王)이 무도하여 괘로 은나라 흥망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은력을 주력으로 고쳤다고 했다. 그는 임괘에서 7개월 뒤인 돈괘를 8월이라 하여 주력의 입장에 섰지만 12벽괘를 이것과 직접 결부시키지는 않았다.<sup>7)</sup> 정현에

6) 『周易鄭康成注』. “臨卦, 斗建丑而用事, 殷之正月也. 當文王之時, 紂為无道, 故於是卦為殷家著興衰之戒, 以見周改殷正之數云. 臨自周二月用事, 訖其七月至八月, 而遯卦受之”

7) 林忠軍은 이에 대해 “12소식괘로 보면 임괘는 (하력)12월 축월이다. 하력 12월은 은력 정월이다. 임괘가 (주력)2월이 되어 용사하여 임괘가 돈괘에 이르기까지 7개월을 거쳐

와서 비로소 삼정을 명시적으로 논했음을 알 수 있다.

『주역집해(周易集解)』에서는 우번과 순상의 견해를 인용하여 언급한다. 우번은 “(임괘(☶)와) 돈괘(☱)는 방통(旁通)<sup>8)</sup>하여 임괘가 돈괘에서 사라지고 (돈괘는)6월괘이다. 주나라 책력으로는 8월이 된다. 돈괘는 그 아버를 죽이므로 ‘8월에 이르면 흉하다’(與遯旁通, 臨消於遯, 六月卦也. 于周爲八月. 遯弑其父, 故至于八月有凶)라 했다”고 했다. 여기서 방통은 두 괘의 음양이 정반대가 되는 것을 말하니 임괘 6호의 음양이 전부 바뀌면 돈괘가 된다. 우번은 “돈괘는 음이 양을 소멸시키고 자식이 그 아버를 죽이니 소인의 도가 자란다(遯, 以陰消陽, 子弑其父, 小人道長)”라고 풀이한다. 이처럼 그는 임괘의 방통괘인 돈괘의 해석을 통해 임괘를 해석한다. ‘8월’에 대해서 돈괘는 하력으로는 6월이지만 주력으로는 8월이니 ‘8월유흉’이라 했다. 즉, 방통을 근거로 ‘8월’을 주력으로 본다. 우번은 “순상이 태괘(兌卦, ☱)를 8월로 여긴다. 태괘는 주력으로 10월인데 8월이라 하니 매우 잘못되었다(荀公以兌爲八月. 兌于周爲十月, 言八月, 失之甚矣)”라고 순상이 주력으로 보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순상은 임괘의 하체가 태괘로 태(兌)는 정서(正西)이며 「설괘전」 5장에 “태괘는 한가을이다(兌正秋也)”라는 언급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니 삼정을 따지지 않고 「설괘전」을 근거로 8월을 말했음을 알 수 있다. 굳이 삼정을 따지자면 하력 8월 유월(酉月) 관괘(觀卦, ䷓)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번과 순상이 어긋나는 지점이다. 여기서 정리할 것이 있다. 경방을 제외하고 정현이나 우번, 순상의 경우에서 보듯 현대의 학자들이 ‘8월’을 보는 관점은, 첫째, 8개월로 세지 않으며, 둘째, 삼정으로는 주로 주력의 입장이 라는 것, 셋째, 삼정 이외 방통과 같은 괘변설이나 「설괘전」을 근거로 ‘8월’을 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니, 돈괘는 (하력)6월이 되고 은력에서는 7월이고 주력에서는 8월이 된다. 그러므로 임괘에서 돈괘에 이르면 8월이 되니 여기서 ‘8월에 이르면 돈괘로 받는다’라 했다”라고 12벽괘의 관점을 보충하여 정현의 주석을 보완했다. 林忠軍, 『周易鄭氏學闡微』(上海: 古籍出版社, 2005), 273쪽.

- 8) ‘방통’이란 ‘두루 모두 통한다’라는 뜻으로 역의 괘효가 발휘 변화하여 만물의 실정과 통한다는 의미이다. ‘방통’의 의미는 乾卦 文言傳 “六爻發揮 旁通情也”에서 나왔다. 이처럼 우번은 ‘방통’으로 역의 변화유행을 풀이하는 ‘방통설’을 주장했다. 즉, 괘효는 방통하여 64괘 384효는 만물과 호환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료명춘 외 2인 공저, 심경호 옮김, 앞의 책, 223-224쪽.

## 2. 당대(唐代)의 관점

공영달(孔穎達, 574-648)과 이정조(李鼎祚)의 관점을 살핀다. 먼저 공영달은 『주역정의(周易正義)』에서 ‘8월’은 신월(申月)이며 천지비괘(天地否卦, ䷋)라고 말한다.

- 1) “8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다”란 사물이 성대하면 반드시 쇠약해지고 음이 자라면 양이 물러나니 임괘(臨)는 축월(丑月)이다. 축월에서 8월<sup>9)</sup>에 이르러 신월(申月)의 때로 3음이 이미 성대하고 3양이 막 물러나 소인의 도는 자라고 군자의 도는 사라지므로 8월에 흉함이 있는 것이다. 성대함은 끝까지 보전할 수 없으니 성인이 역(易)을 지어 이것을 경계한 것이다.<sup>10)</sup>
- 2) 왕필이 주석한 “8월”에서 “흉함이 있다”에 대해 『주역정의』에서 말하였다: “8월”이란 하씨는 “자월 양이 생기는 때부터 미월(未月)에 이르러 8월이 된다”라 했고, 저씨는 “인월(寅月)에서 유월(酉月)까지 8월이 된다”라 했다. 지금 보면 왕필의 주석에서 “소인의 도가 자라고 군자의 도가 사라진다”라 했으니 마땅히 비괘(否卦)의 때에 근거하므로 임괘 축월에서 비괘 신월(申月)까지 8월이 된다.<sup>11)</sup>

1)에서 공영달은 축월에서 세어 8개월째는 신월(申月)이고 이때는 소인의 도는 자라고 군자의 도는 사라지는 8월에 해당되어 흉함이 있어 경계한 것이라 한다. 왕필(王弼, 226-249)은 삼정을 논하지 않았고 8월을 비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왕필의 “8월은 양이 쇠하고 음이 자라서 소인의 도는 자라고 군자의 도는 사라지므로 ‘흉함이 있다’라 했다”는 말은 비괘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2)에서 공영달은 왕필의 말은 비괘를 말한 것으로 보고 임괘 축월에서 비괘 신월은 8개월이 된다고 한다. 공영달이 왕필의 주석이 비괘를 말한 것으로 본 것은 정확하다. 월수의 계산 시점이 임괘라는 점이 복괘(復)에서 기산하는 정이천 등과 다르다. 비괘를 12벽괘에서 8월로 보는 책력은

9) 어떤 판본은 7월로 되어 있는데 8월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丑月-申月까지는 8개월이기 때문이다.

10) 『주역정의』. “至於八月有凶”者，以物盛必衰，陰長陽退，臨為建丑之月 從建丑至於八月建申之時，三陰既盛，三陽方退，小人道長，君子道消，故八月有凶也。°以盛不可終保，聖人作《易》以戒之也。”

11) 『주역정의』. “注，‘八月’至‘有凶’，正義曰：云‘八月’者，何氏云：‘從建子陽生至建未為八月’，褚氏云：‘自建寅至建酉為八月’，今案：此注云‘小人道長，君子道消’，宜據否卦之時，故以臨卦建丑，而至否卦建申為八月也。”

은력이다.<sup>12)</sup> 공영달의 주장에 대해 『주역주소(周易註疏)』에서는 “축재의 설이다.”<sup>13)</sup>라 했고, 장이영(張以寧, 1301-1370)은 『춘왕정월고(春王正月考)』에서 “만약 임괘(☶) 하력 12월에서 기산하면 임괘에서 돈괘(☱) 하력 6월까지의 겨우 7개월이 되니 ‘8월유홍’이라 할 수 없다. 만약 임괘 하력 12월에서 기산하면 임괘에서 관괘(☵) 하력 8월까지의 9개월이 되니 ‘8월유홍’이라 할 수 없다. 지금 하력 12월에서 기산하면 하력의 신월 7월까지 딱 8개월이 되어 당시의 상정(商正=殷曆)의 8월이 된다.”<sup>14)</sup>라고 은력을 주장한 공영달의 입장에 찬성한다. 장이영은 또 문왕이 패시를 지을 때는 은나라 서백(西伯)이어서 주력이나 하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도 든다. 장이영은 공영달이 “하씨는 ‘자월 양이 생기는 때부터 미월에 이르러 8월이 된다’라 했고, 저씨는 ‘인월에서 유월(酉月)까지 8월이 된다’라 했다”는 부분에 대해 하씨(隋代 학자 何妥)는 주력을 말한 것이고, 저씨(양나라 역학자 褚仲都)는 하력을 말한 것이라 했다.

이정조도 공영달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의 『주역집해』에서 “임괘는 12월괘이다. 축월부터 신월까지 모두 8개월을 거치니 비괘(☶)가 된다. 비괘가 되면 천지가 교통하지 못하고 만물이 불통하니 ‘8월에 이르러 흉하다’는 이를 두고 한 말이다(臨十二月卦也。自建丑之月，至建申之月，凡闕八月，則成否也。否則天地不交，萬物不通，是至于八月有凶，斯之謂也)”라 했다. 그가 말하는 ‘임괘는 12월괘’란 하력으로 12월이라는 말이다. 그는 달을 세는 것은 임괘 축월을 기준으로 하여 8개월을 세어 신월 비괘라 한다. 신월 비괘는 하력으로는 7월이고 은력으로는 8월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임괘의 ‘8월’은 하력의 8월이 아니라 8개월이란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은력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대의 경향은 한대와 달리 ‘8월’은 축월에서 8개월을 세어 신월 비괘로 보며 이는 은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공영달은 왕필이 한 임괘 ‘8월’의 주석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2) 국내의 어떤 해설서는 삼정을 하력으로 고정하여 8월을 셈한다. 이는 12벽괘가 하력이란 점과 삼정에 세 가지 책력이 있다는 점을 혼동한 것이다. 왕필·한강백 注, 공영달 疏, 성백효·신상후 공역, 『譯註 周易正義』(전통문화연구회, 2014), 39-42쪽.

13) “蜀才之說也”, 공영달의 설은 축재가 먼저 주장했고 공영달이 이를 따랐다고 『주역주소』가 말한다. ‘蜀才’란 東晉 주역학자인 范賢(字 長生)으로 자칭 ‘축재’라 했다.

14) 『春王正月考』. “若自臨卦夏十二月數起，則自臨至遯爲夏之六月僅得七月，不可言八月有凶。若自臨卦夏十二月數起，則自臨至觀爲夏正之八月，又九闕月尤不可言八月有凶。今自夏十二月數起至夏正之建申七月，恰是八月於時爲商正之八月也。”



### 3. 송·원대(宋·元代)의 관점

왕응린(王應麟, 1223-1296)은 그의 『곤학기문(困學紀聞)』에서 “임괘(☶)의 이른바 ‘8월’에 대해 세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축월에서 신월까지 비괘(☱)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자월에서 미월까지 돈괘(☰)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인월에서 유월(酉月)까지 관괘(☱)가 되는 것인데, 『주역본의』에서는 돈괘와 관괘 2설을 함께 채택했다(臨所謂八月, 其說有三. 一云自丑至申爲否, 一云自子至未爲遯, 一云自寅至酉爲觀, 本義兼取遯觀二說)”라 했다. 이는 ‘8월’에 대해 역사적으로 주력, 은력, 하력으로 해석하는 학설이 있고 주희는 주력과 하력을 함께 채택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후술처럼 송·원대에는 은력을 쓴 학자가 없었다.

#### 1) 정이천(본명: 程頤, 1033-1107)과 주희(朱熹, 1130-1200)의 관점

조선에 정이천과 주희(이하 정·주라 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에 두 사람의 이론을 먼저 살핀다. 정이천은 이에 대해 두 번 말했다. 하나는 “임괘에서 ‘8월유홍’이라는 것은 8월에 이르면 돈괘가 됨을 말한 것이다. 마땅히 양강(陽剛)이 점차 자라는 때 음이 자라는 뜻을 경계한 것이다”라 했고, 또 하나는 “8월은 ‘양이 생기는 8월로 양이 시생하는 복괘(☱)에서 돈괘까지 모두 8개월로 자월에서 미월까지이다’ 두 음이 자라고 양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져 오래가지 못한다’라 했다”라 했다.<sup>15)</sup> 정이천은 삼정을 말하지 않고 12지(支)로는 자에서 미까지, 12벽괘로는 1양 복괘에서 2음 돈괘까지 모두 8개월을 세어 돈괘라 했다. 후학들은 정이천이 삼정을 논하지 않았지만 주력에 근거하여 ‘8월’을 말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주희의 입장은 아래와 같이 좀 복잡하다.

- 1) 임괘는 12월괘이다. 8월은 복괘(☱) 1양의 월부터 돈괘 2음의 월까지 음이 자라고 양이 운둔하는 때이다. 혹자가 8월은 하정 8월이고 괘로는 관괘(☱)가 된다고 하는데 또한 임괘(☶)와 반대괘이다.
- 2) 물었다: “8월에 이르다”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전설은 복괘 1양의 달로부터 돈괘(☰) 2음의 달에 이르는 것이니, 음이 자라고 양이 운둔할 때이다. 후설은

15) 『대전』. 1) 臨言八月有凶, 謂至八月是遯也. 當其剛浸長之時, 便戒以陰長之意. 2) 八月, 謂陽生之八月, 陽始生于復, 自復至遯, 凡八月, 自建子至建未也. 二陰長而陽消矣, 故云消不久也.

태괘(☵)로부터 관괘(☶)에 이르는 것으로 관괘는 2양이 위에 있고 4음이 아래에 있어 임괘(☶)와 상반되니 또한 음이 자라고 양이 사라지는 때이다. 이 두 학설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대답하였다: 앞의 학설은 주력 8월이며 뒤의 학설은 하력 8월이다. 아마 문왕이 괘사를 지을 때 주력만을 사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sup>16)</sup>

주희의 논지는 세 가지이다. 먼저 12벽괘를 맹희의 관점대로 하력으로 본다. 그래서 그는 임괘가 12월괘, 돈괘(☱)를 6월괘, 관괘를 8월괘라 한다. 또 하나 그는 1양이 시생하는 복괘(☱)에서 세어서 8번째 벽괘인 돈괘를 음이 자라고 양이 은둔하는 때인 8월이라고 원칙적으로 언명하면서도, 하력의 정월인 태괘부터 세어 8번째인 관괘를 8월로 보는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주희는 전자는 주력이고 후자는 하력이라 했다. 결국 주희는 8개월을 세는 것을 기본으로 주력과 하력 둘 다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문왕이 임괘 “8월유홍”을 지을 때 주력에 근거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주희의 이런 태도는 후학들의 다양한 학설을 양산케 하는 한편 혼란도 초래했다.

## 2) 주력(周曆)의 관점

임천오씨 오징(吳澄, 1249-1333)은 “至于八月有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나라 역법으로 정월(天正)인 자월(建子之月=1월)에 1양이 처음 생겨 복괘가 되고, 2번째 축월(建丑之月=2월)은 2양이 자라나 임괘가 되고, 7번째 오월(建午之月=7월)은 1음이 처음 생겨 구괘(姤卦, ☱)가 되고, 8번째 미월(建未之月=8월)은 2음이 자라나 돈괘가 된다. 돈괘는 임괘와 정반대괘이니, 임괘의 6획이 모두 변한 것이다. 지금 2양의 임괘는 양이 자라나 음은 사라질 것이다. 8월인 2음의 돈괘에 이르러 음이 자라나 양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점(占)에서 “8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다”고 하였다.<sup>17)</sup>

16) 『대전』. 1) 臨, 十二月之卦也. 八月, 謂自復卦一陽之月, 至于遯卦二陰之月, 陰長陽遯之時也. 或曰八月, 謂夏正八月, 於卦爲觀, 亦臨之反對也. 2) 問, 至于八月有兩說, 前說自復一陽之月, 至遯二陰之月, 陰長陽遯之時. 後說自泰至觀, 觀二陽在上, 四陰在下, 與臨相反, 亦陰長陽消之時. 二說孰長. 曰, 前說是周正八月, 後說是夏正八月, 恐文王作卦辭時, 只用周正紀之不可知也.

17) 『대전』. “臨川吳氏曰, 自天正建子之月, 一陽始生爲復, 其二建丑之月, 二陽長而爲臨, 其七建午之月, 一陰始生爲姤, 至其八建未之月, 則二陰長而爲遯, 遯者臨之正對, 臨卦六畫變盡也. 今日二陽之臨, 陽長而消陰也. 至于八月二陰之遯, 則陰長而消陽也, 故其占

오징은 먼저 삼정에서 주나라 정월인 천정(天正)으로 못 박고서 임괘(臨)의 '8월'을 말한다. 그래서 12지월과 12벽괘로 보면 정월은 자월로 1양인 복괘(復)이고 2월은 축월로 2양인 임괘이고 7월은 오월(午月)로 1음인 구괘(姤)이고 8월은 미월로 2음인 돈괘(遁)라고 한다. 그는 이처럼 8개월을 세지 않고 주력에서 8월이라고 정한 미월과 이에 상응하는 12벽괘에서 2음괘인 돈괘를 8월이라 한다. 이 점은 정현의 주장과 같다. 8월이 돈괘가 되는 이유로 그는 두 가지를 든다. 첫째, 돈괘는 임괘 6효의 음양이 모두 변한 정반대괘라는 점이다. 둘째, 임괘에서는 2양이 자라 곧 음이 사라지지만 8월의 돈괘에 이르면 2음이 점차 자라 양이 없어져서 흉할 것이므로 점(占)에서 “8월에 이르면 흉함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정현과 다르다. 주진(朱震, 1072-1138)은 『한상역전(漢上易傳)』에서 “자월에서 미월까지 8개월로 2음이 자라고, 음이 자라서 양이 쇠퇴하니 그 괘는 돈괘가 된다(自子至未, 八月而二陰長, 陰長陽衰, 其卦為遯)”라 하였으니 이 또한 주력의 입장이다.

### 3) 하력(夏曆)의 관점

용산이씨(隆山李氏, 李舜臣)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은 자(子)에서 생겨 사(巳)에서 마치며, 음은 오(午)에서 생겨 해(亥)에서 마친다. 그러므로 1양인 복괘는 11월인데 사(巳)에 이르러 건괘(乾卦)가 되니, 양이 지극하면 음이 생기는 것이다. 1음인 구괘는 5월이고, 2음인 돈괘는 6월이고, 3음인 비괘(比)는 7월이고, 4음인 관괘(觀)는 8월이다. 축월의 괘는 임괘가 되는데 2양이 차츰 자라 4음을 꺾박하니, 이때가 양의 세력이 막 성대할 때이다. 8월에 이르러 유월(酉月)의 괘는 관괘가 되는데 4음이 차츰 자라 2양을 꺾박하니, 임괘의 2양이 관괘에 이르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8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다”고 하였다.<sup>18)</sup>

그는 하력의 입장에서 2음괘인 돈괘는 6월, 4음괘인 관괘는 8월로 유월(酉月)이 된다고 했다. 그는 해당 괘에서 12지를 세어 8개월째 되는 12벽괘를 8월로 보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순전히 하력만으로 8월을 말하여

爲至于八月則有凶也.”

18) 『대전』. “陽生於子終於巳, 陰生於午終於亥, 故一陽復十一月, 至巳爲乾, 則陽極陰生. 一陰姤五月, 二陰遯六月, 三陰否七月, 四陰觀八月. 方建丑月卦爲臨, 二陽浸長逼四陰, 當此之時, 陽勢方盛. 至于八月建酉卦爲觀, 四陰浸長逼二陽, 則臨二陽至觀危矣, 故曰至于八月有凶.”

12지로는 유월(西月)이고 12벽괘로는 관괘(觀)라 한다. 8월의 흉함은 임괘(臨)의 2양이 관괘에 이르던 위험하다는 의미라 한다. 그는 8월을 헤아릴 때 본괘인 임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8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다”는 것은 임괘에서 말한 것이니 당연히 임괘로부터 세어야 하고 복괘(復)로부터 세어서는 안 된다. 관괘가 임괘 다음에 있으니 관괘까지 세어야 하고 돈괘(屯)까지 세어서는 안 된다. 임괘와 관괘는 음양이 반대로 사라지고 자라는 이치가 일정하다. 문왕이 임괘에서 8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다고 경계한 그 뜻이 매우 분명하다. 어찌 밖에서 돈괘를 끌어와 주나라의 8월이라고 하겠는가?<sup>19)</sup>

이처럼 용산이씨는 8월 계산의 기산점을 본괘인 임괘로 하지 않고 복괘에서 셈한 정·주를 비판한다. 주의할 점은 용산이씨가 셈한다는 것은 월수를 센다는 뜻이 아니라 ‘헤아리다’, ‘생각하다’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즉, ‘8월’에 도달하는 출발점은 복괘가 아니고 임괘이며 도착점은 돈괘가 아닌 관괘라는 뜻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sup>20)</sup> 그는 정·주가 음양소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1양 시생의 복괘를 기준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임괘와 관괘야말로 음양이 반대로 생멸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고 그래서 문왕이 분명히 경계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돈괘를 끌어와 주력 8월이라고 하는 주희를 신랄히 비판한다. 비슷한 입장에 선 학자는 운봉호씨(雲峰胡氏, 胡炳文, 1250-1333)이다. 그는 “관괘는 네 음을 취하여 뜻으로 삼지 않았다. 임괘에서 ‘8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다’고 하였으니, 관괘가 8월괘가 됨을 이미 여기서 볼 수 있다(觀卦不取四陰爲義. 於臨曰八月有凶, 則觀爲八月卦, 已見於此矣)”라 했다.

#### 4) 기타 역리(易理)의 관점

삼정보다 다른 역리로 ‘8월’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양만리(楊萬里, 1127-1206)는 『성재역전(誠齋易傳)』에서 “8월에 이른다는 것은 반드시 돈괘에 다다른 뒤 8월이 되는 것은 아니다(至于八月, 非必至遯而後爲八月

19) 『대전』. “所謂‘至于八月有凶’者, 言之于臨, 則當自臨數, 而不當自復數. 以觀次臨, 則當數至觀, 而不當數至遯. 臨觀乃陰陽反對, 消長之常理. 文王於臨以八月有凶爲戒, 其義甚著, 豈可外引遯卦, 謂周八月哉.”

20) 용산이씨의 ‘센다’를 월수를 센다고 이해하여 틀렸다고 지적하는 조선의 학자—李顯益—가 있는 반면, 헤아리다로 이해하여 하력의 西月 관괘를 적극 지지하는 학자—朴齊家, 河友賢—도 있다.

也)라고 하여 반드시 8월이 돈괘가 될 필요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어서 “곤괘(坤卦, ䷁)의 육이에서 임괘(臨卦, ䷒)의 구이가 되니 곤괘의 6호와 함께 8이 된다. 그러므로 ‘8월’이라 했다(自坤之六二, 為臨之九二, 與坤之六爻而八, 故曰八月)”라고 했다. 양만리는 삼정으로 ‘8월’을 논하지 않고 곤괘 육이와 임괘의 구이 및 곤괘 6호 합 8호로 8개월을 말하는 근거로 삼는다. 절재채씨(節齋蔡氏, 蔡淵, 1156-1236)는 “임괘와 돈괘(䷆)는 음양이 바뀐 괘이다. 임괘의 초효에서 돈괘의 2호까지 괘에서는 8호를 거치고, 달(月)에서는 8개월을 거처서 강유(剛柔-陰陽)가 모두 변하여 임괘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8월에 이르러 흥함이 있다’고 했다(臨與遯反, 自臨之初爻, 至遯之二爻, 在卦經八爻, 於月經八月, 剛柔皆變, 臨盡消矣, 故曰至于八月有凶)”라고 하였다. 그는 12벽괘에서 1효는 1개월이라는 원칙하에 임괘 6호와 돈괘 2호 합 8호를 8개월을 거친 것으로 본다. 돈괘를 8월로 보되 주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경과 효·월을 기준으로 임괘 ‘8월’을 설명했음을 알 수 있다. 운봉호씨의 말이다.

팔월에 대해 세 가지 설(說)이 있다. 관괘(䷓)를 8월로 보는 것이 첫째 설이다. 임괘의 6자리를 지나 돈괘 초효와 2효의 2음에 이르면 모두 8자리이니, 8은 수로는 음이며 상으로는 달(月)이다. 박괘(剝卦, ䷖)의 6호를 지나 복괘(復卦, ䷗)의 초효인 하나의 양까지 모두 7자리이니, 7은 수로는 양이며 상으로는 해(日)라는 것이 둘째 설이다. 복괘의 하괘는 진괘(震卦, ䷲)인데 진(震)은 소양(少陽) 7로 위치는 동쪽으로 해가 쬐는 방향이며, 임괘는 하괘가 태괘(☱)인데 태(兌)는 소음(少陰) 8로 위치는 서쪽으로 달이 뜨는 방향이라는 것이 셋째 설이다.<sup>21)</sup>

운봉호씨는 ‘8월’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라고 말한다. 하력의 관괘로 봄을 첫째 설로 꼽는다. 이는 자신이 주장했던 설이기도 하다. 그의 말에서 눈여겨볼 점은 은력이 빠진 점이다. 앞의 주희의 말과 운봉호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송·원대에는 후한이나 당대와는 달리 은력을 제외하고 ‘8월’을 봄을 알 수 있다. 운봉호씨는 여기서 다른 두 가지 설을 소개한다. 하나의 설은 효의 수로 보는 것이다. 임괘 6호와 돈괘의 2호를 거친 도합 8호를 ‘8월’로 보는 것으로, 돈괘를 ‘8월’로 보는 것인데 절재채씨의

21) 『대전』. “八月有三說. 觀八月, 一說也. 歷臨六位, 至遯初二陰凡八位, 八於數爲陰, 於象爲月, 歷剝六爻, 至復初一陽凡七位, 七於數爲陽, 於象爲日, 二也. 復下震, 震少陽七, 位於東爲日出之方. 臨下兌, 兌少陰八, 位於西爲月出之方, 三也.”

설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복괘(☱)의 괘사 “7일 내복(七日來復)”을 든다. 즉, 복괘와 괘체를 뒤집은 박괘(☶)의 6호와 복괘 초효를 거친 7호가 ‘7일’에 해당하는데, ‘8’은 수로는 음수이고 상(象)으로는 ‘달(月)’이라 하고 ‘7’은 양수이고 ‘해(日)’라는 것이 하나의 설이라 했다. 또 하나의 설은 복괘의 하체는 진괘(☳) 소양 7로 위치는 해가 솟는 동쪽이고, 임괘(☶)의 하체는 태괘(☰) 소음 8로 위치는 달이 뜨는 서쪽이라 한다. 순상의 주장과 비슷하다. 이 두 설 중 앞의 것은 임괘의 6호와 돈괘(☱)의 2효 합 8효의 경과로 ‘8월’을 설명하고, 또 박괘의 6호와 복괘의 1효 합 7효의 경과로 ‘7일’을 설명했다. 뒤의 것은 소음과 소양 사상(四象)의 위(位)와 수(數)에 따라 임괘의 ‘8월’과 복괘의 ‘7일’을 설명했다. 이 두 가지 설에서는 삼정과 무관하게 ‘8월’을 논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소수설에 불과하다. 명·청대도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sup>22)</sup>

### III. “팔월”에 대한 조선의 관점

『주역』 임괘 ‘8월’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시각은 두 부류로 나뉜다. 삼정의 입장인 부류와 삼정의 틀을 보조적으로 인정하되 역리—음양사상—에 근거하는 부류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송시열, 정조, 정약용 등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권근, 유정원 등이다. 송시열과 정조는 하력의 관점이고 정약용은 주력의 관점이다. 또 송·원대와 다른 점은 송대 학자들이 채택하지 않은 은력으로 ‘8월’을 보는 학자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삼정 논란에 대해 송대의 틀을 벗어나 독자적인 시각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2) 대표적으로 래지덕(來知德, 1525-1604)과 왕부지(王夫之, 1619-1692)를 들 수 있다. 래지덕의 요점은 임괘와 관괘(☶)는 종괘(綜卦: 뒤집은 괘)고 同體라서 ‘8월’은 관괘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 「잠괘전」의 “臨觀之義, 或與或求”를 든다. ‘8월에 이른다’는 것은 임괘에서 세지 않고 관괘 西月에 이르기까지 8개월이라 한다. 來知德 撰, 張萬彬 点校, 『周易集注』 上(北京: 九州出版社, 2004), 299쪽.  
왕부지의 요점은 漢儒들의 괘기설과 12벽괘설은 전국시대 경학이 무너진 산물로 보고 역리에 위배된다고 한다. 그는 ‘8월’은 12벽괘에 입각한 돈괘나 관괘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한편 문왕시대이니 周曆은 있을 수 없고 은력과 하력을 합해서 말한 것으로 가을(秋)이라 한다. 그 근거로 「설괘전」 5장의 “兌正秋也”를 든다. 王夫之 撰, 이일훈 점교, 앞의 책, 140-141쪽.

## 1. 음양의 관점 등

먼저 권근(權近, 1352-1409)의 관점이다. 그는 『주역천건록』과 『입학도설』을 지어 조선에서 역학의 문호를 연 인물로, 『주역천건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왕이 유리에서 역을 연역하던 그 당시는 주력이 정립되지 않았고, 상정(商正-殷曆)을 쓰던 때였다. 그러나 이른바 “8월은 복괘(☱)에서 돈괘(☵)에 이르는 8월이다”라 한 것이 주력의 8월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문왕이 주력을 사용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음양이 사라지고 자리는 수로써 말한 것으로, 복괘에서 “7일이 되어 회복한다”고 한 것과 같은 종류이다.<sup>23)</sup>

권근은 임괘(☶)의 ‘8월’은 삼정의 문제가 아니라 음양 소장의 수의 문제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즉, 역리와 역수(易數: 理數)로 풀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삼정을 대입할 경우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하정(夏曆)으로 말한다면 관괘(☶)는 임괘와 반대괘(뒤집은 괘)로서 유월(酉月) 8월의 괘이며, 또한 양이 사라지고 음이 자라나는 때이다. 문왕이 역을 연역할 당시인 상정(商正)으로 말하면 임괘는 축월(丑月) 1월의 괘이다. 이로부터 신월(申月) 8월에 이르면 그 괘는 비괘(☱)가 된다. 음이 자라 이미 왕성하고 양은 밖에서 사라져서 하늘과 땅이 교통하지 않는 때이니, 그 흉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문왕이 역을 연역하면서 오직 음양을 위주로 말하였으니, 반드시 천자의 책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천자의 책력을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상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괘를 머리(正月)로 삼아야 했다. 하력도 소급하여 쓸 수 없는데, 하물며 천하를 차지하기 전 유리에 간혀 있을 때 이미 주력을 수립했겠는가?<sup>24)</sup>

권근은 문왕이 연역(演易)할 때 음양의 관점에서 ‘8월’을 말했지 책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굳이 삼정을 논한다면 시대가 은대이니 은력을 사용해서 ‘8월’은 비괘가 된다고 한다. 그는 이처럼 과감하게 송대의

23) 『집성』. “文王演易於羗里，方是時，周末立正，用商正之時也。然所謂‘八月’自復至遯之八月，是雖周正之八月，文王非是欲用周正，但以陰陽消長之數而言，如復卦七日而復之類也。”

24) 『집성』. “以夏正言之，則觀爲臨之反對，建酉八月之卦，亦陽消陰長之時也。以演易之時，商正言之，則臨爲建丑一月之卦。自此至建申八月，則其卦爲否。陰長已盛，陽消在外，天地不交之時，其凶可知。但文王演易，只主陰陽而言，不必用王正。如用王正，當用商正，以此卦爲首也。夏正且不可追用，況未有天下之前，方在羗里之時，而已立周正乎?”

관점을 벗어나서 역의 본래 성질인 음양으로 '8월'을 바라보는 견해를 제시하고 또 송대에서 주장하지 않은 은력을 제시하기도 한다. 조선 초에 이런 주장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또 문왕 당시에는 주력을 쓸 수 없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주희에 대한 간접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다음은 유정원(柳正源, 1730-1788)의 관점이다. 그는 『역해참고(易解參攷)』에서 공영달의 『주역정의』에서 논한 삼정 문제(주석 10, 11 참조)와 남송대 역학자 임율(林栗)의 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기 의견을 제시한다.

1) 이른바 삼대가 서로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만 11월과 12월을 세수(歲首)로 했을 뿐이다. 『서경』 「태갑」에 “원년 12월 乙丑”이라고 하고, “무왕 11년 1월 戊午”라고 하며, 진한(秦漢)에서 “원년 겨울 10월”이라고 한 것이 모두 그 예이다. 2) 『춘추』에 “王 正月 11월”이라고 한 것은 모두 주력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임씨가 아울러 하력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시경』·『서경』·『사기』에서 정삭을 비록 여러 번 고쳤지만 달을 세는 것은 항상 하력을 썼다. 그러나 여기에서 8월이라 한 것은 정삭달(正月)의 수를 쓴 것이 아니라, 다만 양이 하나인 달로부터 계산하여 음이 셋인 달에 이르러 8개월을 지나 임괘(臨)와 상대가 되는 것일 뿐이다. 만약 8월을 한 해의 8월이라고 한다면, “7월에 와서 회복한다”는 것도 또한 한 달의 7일이라는 말인가? 3) 『주역본의』 앞의 말 ‘단지 음양이 사라지고 자라는 것으로 말한 것이지 주력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론으로 삼아야 할 듯하다.<sup>25)</sup>

유정원은 경전에 나오는 삼정의 문제를 개괄적으로 논하면서 임괘의 '8월'을 말한다. 그는 2)에서 삼대가 차례로 정월을 바꾸었지만 달을 세는 기준은 하력이라 했고 그 원칙은 『시경』·『서경』·『사기』에 적용되었다고 했다. 이 말은 『서경집전』의 내용과 같다.<sup>26)</sup> 이처럼 월수는 하력으로 고정되고 시대마다 정월로 삼는 세수만 달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1)에서 『서경』 「태갑」 원년 12월 을축을 예로 들면서 은대에

25) 『집성』. 1) 所謂三代不相沿襲者，但以十一月十二月爲歲首耳。太甲唯元祀十有二月乙丑，武王十有一年一月戊午，秦漢元年冬十月，是其例也。 2) 春秋王正月十一月皆周正，故書王字，而林氏並謂之夏正者誤矣。詩書史記正朔雖累改而月數誠用夏正。然此所云八月，非用正朔月數，特自一陽之月計，至三陰之月，歷八箇月，與臨相對。若謂八月，是歲之八月，則七日來復，亦月之第七日耶。 3) 本義前說，只以陰陽消長言之而不言周正者，恐當爲定論。

26) 『書經集傳』 「伊訓」. “惟元祀十有二月乙丑”에 대해 채침이 주석하기를, “삼대의 정삭이 비록 같지 않으나 모두 寅月로 數를 일으켰다. [...] 달의 수를 기록할 때에는 모두 寅月을 시작으로 삼았다(皆以寅月爲首也)”라 했다. 채침 撰, 정백효 譯註, 『書經集傳』 上(전통문화연구회, 2007), 291-293쪽.



는 12월을 세수인 정월로 삼고 주대에는 1월을, 진한은 10월을 세수로 삼았다고 했다. 그럼 임괘(☶) 8월은 어떠한가? 유정원은 여기의 '8월'은 삼정과 무관하고 달수와도 무관하다고 하면서, 만약 1년 가운데 8월이라면 복괘(☱)에서 '7일'은 한 달 가운데 7일이란 말인가? 라고 반문한다. 단지 1양에서 3음인 달까지 8개월을 지나 임괘와 상대하는 괘를 말한다고 한다. '상대괘'는 무엇인가? 3음괘인 비괘(☵)를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면 8개월은 한편(1陽復卦-2陰遯卦)만 셈한 것이 된다. 양편(1陽復卦-3陰否卦)을 셈한 것이라면 9개월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음양 관점으로 보는 근거를 "음양소식으로 말한 것이지 주력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역본의』 앞의 말<sup>27)</sup>에서 찾는다. 유정원이 음양소식으로 '8월'을 본 것은 권근과 같다. 이처럼 삼정의 틀에서 벗어나서 '8월'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항로와 이진상이다.

이항로(李恒老, 1792-1868)는 『주역전의동이석의(周易傳義同異釋義)』에서 "1양의 달로부터 세어서 돈괘(☱)에 이르러 8월이 되는 것은 달을 계산해서 말한 것이니, 7일이면 와서 회복한다는 예와 같으므로 꼭 주력인지 하력인지 논할 필요는 없다(自一陽之月數, 至遯卦爲八月者, 計月而言, 如七日來復之例, 不必論周正夏正也)"라 했다. 이항로는 삼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개월 수를 세어 '8월'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은 『역학관규(易學管窺)』에서 복괘의 7일이 삼정과 관계없듯 임괘의 8월도 삼정과 무관하다고 한다. 그는 임괘 축월에서 8개월을 셈한 달이 신월 비괘라 하며, 임괘 8월의 흥함은 비괘 「단전」에서 말하는 소인의 도는 자라고 군자의 도는 사라지는(小人道長, 君子道消也) 것을 가리킨 말이라고 해석한다.

27) '本義前說'이 『주역본의』에서 주희가 앞에서 말한 것인지, 『주역본의』 앞의 다른 주석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주희는 유정원이 인용한 '단지 음양이 사라지고 자라는 것으로 말한 것이지 주력을 말한 것이 아니다(只以陰陽消長言之而不言周正)'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주역전의대전』의 임괘 부분에 이런 문구가 없다는 점이다.

## 2. 삼정의 관점

### 1) 주력의 관점

조선시대 '8월'을 주력으로 보는 학자들을 보면 먼저 강석경(姜碩慶, 1666-1731)을 들 수 있다. 그는 『역의문답(易疑問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 삼정을 번갈아 썼던 것을 삼통(三統)이라고 하였다. 하나리는 인통(人統)을 썼고 사람이 인(寅)에서 생겼기 때문에 정월은 인(寅)에서 취하고 연산역(連山易)은 건괘(艮卦, ☶)를 머리로 하였다. 상나라는 지통(地統)을 썼고 땅이 축(丑)에서 열렸기 때문에 정월은 축(丑)에서 취하고 귀장역(歸藏易)은 곤괘(☷)를 머리로 하였다. 주나라는 천통(天統)을 썼고 하늘이 자(子)에서 열렸기 때문에 정월은 자(子)에서 취하고 주역(周易)은 건괘(☶)를 머리로 하였다. 이로부터 보면 문왕이 序卦한 처음에 이미 주나라의 책력을 썼는데, 글을 단 때에 이르러 도리어 하나라 책력을 썼겠는가? 또한 주공의 이른바 '일지일(一之日), 이지일(二之日)'이라는 것도 또한 주력을 쓴 것이다.<sup>28)</sup>

강석경은 주나라는 천통으로 정월을 동지 자월로 취하고 『주역』은 건괘를 머리로 하므로 문왕이 괘를 차례 매길 때나 괘사를 붙일 때는 물론이고 『시경』에 나오는 '일지일(一之日), 이지일(二之日)'도 주력을 썼다고 주장한다. 『시경』의 글이 주력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이설(異說)이 있다.<sup>29)</sup> 아울러 괘사를 지을 때 하력을 사용했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한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주역사전(周易四箋)』에서 임괘(☶)의 '8월'에 대해 "8월이란 주력으로 미월이다(八月者, 周正建未之月也)"라 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삼역론(三易論)을 논하고 그중에서 변역론(變易論)으로 이 부분을 해석한다. 삼역론으로 보면 첫째, 반역(反易)으로, 즉 임괘의 반대(괘를 뒤집음)는 관괘(☶)가 되는 경우이고, 둘째,

28) 『집성』. “古者迭用三正, 謂之三統也. 夏用人統而人生於寅, 故正取建寅而連山首艮, 商用地統而地關於丑, 故正取建丑而歸藏首坤. 周用天統而天關於子, 故正取建子而周易首乾. 由是觀之, 文王序卦之初, 已自用周正, 及至繫辭之時, 反用彼夏正乎. 且周公所謂一之日二之日, 是亦用周正也.”

29) ‘一之日, 二之日’은 『시경』 「빈풍」 7월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주희는 “一之日, 謂斗建子, 一陽之月. 二之日, 謂斗建丑, 二陽之月也. 變月言日, 言是月之日也”라 했다. 주희는 7월은 하력의 7월로 申月이라 했다. 주희 撰, 성백효 譯註, 『詩經集傳』 上(전통문화연구회, 2008), 321-322쪽.

교역(交易)으로 임괘(臨卦)가 교통(상하괘 반대)하여 취괘(萃卦)가 되는 경우이며, 셋째, 변역(變易)으로 임괘가 변하여(음양 반대) 돈괘(屯卦)가 되는 경우이다. 임괘의 2양이 지금 비록 점점 자라지만 돈괘의 월에 이르면 2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8월유홍”이라 했다고 한다. 즉, 그의 관점은 변역론을 취하여 주정팔월(周正八月)인 돈괘로 본다.

심대운(沈大允, 1806-1872)은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인이 백성에 임하는 처음에 뒤집혀 망하는 우환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8월에 이르러 홍함이 있다”고 경계하였다. 초효의 양이 처음 생겨나면서부터 세어 6에 이르러 건괘(夬卦)가 되고, 또 아래로부터 세어 음이 둘 생겨나면 전부 8이 되어 돈괘가 된다. 복괘(復卦)에는 양이 회복되는 것을 ‘일(日)’이라고 하였고, 여기서는 음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월(月)’이라고 하였다. 돈괘에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르며 감추고 피하여 쓰지 않는 뜻이 있는데,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르는 것은 백성들의 일에 일정함이 없는 것이고, 감추고 피하여 쓰지 않는 것은 군도에서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니 경계를 내려준 것이 깊다. 2양이 점점 자라는 때에 2음이 다시 성대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잊지 않는 것이 군자의 큰 지혜이다.<sup>30)</sup>

심대운은 복괘부터 세어 8효, 즉 8개월에 이르면 돈괘라 한다. 복괘에서 세어 8개월째 돈괘를 ‘8월’로 보니 주역의 입장이다. 그는 또 임괘 2양 때에 돈괘 2음 때를 경계함이 군자의 큰 지혜라고 했다. 복괘에서 양이 회복되는 것을 ‘일(七日)’이라 하고, 임괘에서는(돈괘에서) 음이 다시 생기니 ‘월(八月)’이라고 하여 경계했다고 했다.

## 2) 은력의 관점

이익(李瀼, 1681-1763)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괘 2효로부터 6자리를 지나 본효로 돌아오고, 또 한 자리를 나아가면 8개월이다. 이것은 비괘(比卦)를 가리켜 말하였다. 비괘는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고 소인의 도가 자라나니, 홍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양은 날을 주관하고 음은 달을 주관하기 때문에 저기(復卦)에서는 날(日)을 말하였고 여기(臨卦)에서는 달(月)을 말하였다.

30) 『집성』. “聖人於其臨民之初，知有覆亡之患，故戒之曰‘至于八月有凶’。自初爻之陽始生數，至六爲乾，又自下數陰生二，則凡八而爲遯。復言陽之復則曰‘日’，此言陰之復生則曰‘月’。遯有舍舊從新及斂避不用之義，舍舊從新者，民事之无常也，斂避不用者，君道之節欲也，其垂戒深矣。方二陽浸長之時，不忘二陰復盛之戒，君子之大知也。”

8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복괘(☱)에서 돈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복괘가 임괘(☱)의 앞에 있으니 임괘에는 맞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주력의 8월로 지금의 6월 미(未)에 해당한다고 말하는데, 이 또한 타당하지 않다.<sup>31)</sup>

이익은 임괘 2호부터 돈괘 2호까지 합 7호에서 1호 더 나아간 3음의 비괘(☱)를 여기의 '8월'로 본다. 또 복괘에서 돈괘까지 8개월이라는 설도 틀린 것이고 주력의 8월인 미월(未月)로 말하는 것은 하력의 6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한다. 결국 그는 은력의 입장에서 '8월'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세학(崔世鶴, 1822-1899)은 『주역단전괘변설(周易象傳卦變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괘는 태괘(☰)의 한 몸체가 변한 것이다. 육삼효 한 효가 괘주가 되기 때문에 「단전」에서 '강(剛)이 점점 자라는 것'으로 경계하였다. 비괘의 육삼효가 와서 (임괘)하체에 있는 2양의 위에 임하고, 가장 긴밀하게 임하기 때문에 괘의 이름이 유래했으며, 양에게 꺾박당한다. "8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어 사라져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8월은 한가을인 태괘이고, 강(剛)이 점점 자라면 태괘의 음은 사라져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sup>32)</sup>

최세학은 괘변으로 '8월'을 비괘가 됨을 말하려고 했다. 즉, 임괘는 태괘(☰)에서 변한 것이고 아울러 비괘 육삼효가 임괘의 아래 2양 위에 임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임괘의 하체인 태괘(☰)는 정추(正秋)인 8월로 음이 사라져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독특하게 괘변으로 풀이하지만 '8월'을 비괘로 보는 것은 은력이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이병헌(李炳憲, 1870-1940)은 『역경금문고통론(易經今文考通論)』에서 "8월은 비괘의 달을 말함이다. 12벽괘에서 건곤 이외는 모두 격해서 한 번 회전하는 수이기 때문에 6월, 8월 두 달이 다른 것이다. 흉함이 있어 사라져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점점 자라는 양을 오랫동안 믿을

31) 『집성』. “自臨二歷六位而還於本爻，又進一位，則八月也。此指否而言也。否天地不交，小人道長，凶莫大於此也。陽主日陰主月，故彼言日此言月也。八月有數說，或謂自復至遯也，復在臨前，於臨不著也。或謂周正八月，今之六月建未也，此又未當。”

32) 『집성』. “臨，泰之一體變也。三一爻爲主，故象以剛浸而長戒之。否三來臨於下體二陽之上，而臨之最密近，故爲名卦之由，而見逼於陽也。八月有凶消不久，八月正秋兌也，剛浸而長，則兌陰之消不久也。”

수 없으니 돈괘(☰)를 지나고 비괘(☱)를 거쳐 군주와 부모가 근심하고 흉한 데 이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관괘(☶)에는 심묘한 도리로 가르침을 베푸는<sup>33)</sup> 뜻이 있으니 이것으로 무궁하게 통한다(八月謂否月也, 十二辟卦自乾坤以外皆隔一轉之數, 是以有六月八月, 二月之異也. 有凶消不久者, 浸長之陽不可久恃, 而過遞歷否, 至有君父之憂凶如何也. 故觀有神道設教之義, 以通之無窮)"라 했다. 그는 '8월'이 비괘라고 한다. 이는 은력으로 '8월'을 본다는 뜻이다. 그는 또 12벽괘에서 건곤 이외는 한 괘 건너 회전하는 원칙이 있어서 6월과 8월이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돈괘와 비괘를 지나 그다음 관괘의 「단전」에서 말하는 “심묘한 도리로 가르침을 베푸다”는 의미를 가지고 군부(君父)의 근심을 해결하는 방도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12벽괘의 변통론으로 삼정에서 은력이 됨을 주장하는 새로운 이론이다. 조선시대는 이처럼 다양한 논리로 '8월'이 은력으로 비괘가 됨을 주장하였는데 송대와는 다른 역학사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별성은 앞의 권근의 맥을 잇는 것이다.

### 3) 하력의 관점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역설(易說)』<sup>34)</sup>에서 “임은 크게 형통하고 곧게 함이 이로우니, 8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번잡한데, 굳이 그렇게 깊은 이치를 찾을 필요는 없다. 8월은 유월(酉月)이고, 유(酉)는 태괘(☱)이다. 하괘가 태괘이기 때문에 '8월에 이르러'라고 말하였고, 곤괘(☶)는 순음이고 양의 도가 다 없어진다. 4음 2양은 8월의 상(觀卦, ䷓)인데, 괘에 이러한 상이 있고 오래지 않아 양이 다 소멸하기 때문에 '흉함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곤괘의 순음으로 말한 것이다(臨, 元亨利貞, 至于八月有凶者, 諸說浩繁, 要隲莫尋然. 八月, 建酉之月, 酉兌也. 下卦爲兌, 故曰至于八月, 坤則純陰而陽道盡消. 四陰二陽, 八月之象, 卦有此象而不久陽將盡消, 故曰有凶, 蓋以坤之純陰言也)"라 했다. 송시열이 8월이 유월(酉月)이고 관괘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력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또 임괘(☶)의 하체는 태괘이기 때문에 8월이라고 하는 데서 「설괘전」 5장(兌, 正秋也)도 감안했음을 알 수 있다.

33) 『周易』 觀卦 「단전」. “聖人以神道設教而天下服矣”

34) 『易說』이 송시열의 온전한 작품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집성』에 수록된 것을 따랐다.

박제가(朴齊家, 1750-1815)는 그의 『주역(周易)』에서 앞에서 언급한 주희의 문답을 인용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아마도 기록한 사람의 잘못된 듯하다. 8월이 돈괘(☵)가 된다는 것은 정자에 게서 시작되었는데 도리어 삼정을 말하지 않았고, 정삭을 고치는 것은 혁명 이후의 일인데 문왕이 어찌 미리 먼저 정삭을 고치는 일이 있었겠는가? 이것은 문왕의 생각이 아직 싹트지 않았을 때의 일로, 아마도 주자의 설이 아닐 것이다. 용산이씨는 “8월에 흉함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임괘로부터 세어야 하고 복괘(☱)로부터 세어서는 안 된다. 관괘(☶)까지 세어야 하고 돈괘까지 세어서는 안 된다. 임괘(☵)와 관괘는 음양이 반대로 사라지고 자라는 이치가 일정하다. 그 뜻이 매우 분명한데 어찌 밖에서 돈괘를 끌어와 주나라의 8월이라고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것이 확정적인 논의이다.<sup>35)</sup>

박제가는 앞서 언급한 하력 입장인 용산이씨의 주장을 확정적이라고 적극 찬성한다. 용산의 주장은 하력의 바탕에서 주희의 일관성 없음을 비판한 것이다. 박제가도 내심 주희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하지만 겉으로 는 주희의 말이 아니고 주희 주장을 받아쓴 사람의 잘못된 양 말하고 있다. 이처럼 용산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 사람이 또 있으니 바로 하우현(河友賢, 1768-1799)이다. 그는 『역의의(易疑義)』에서 말하기를, “8월이라고 한 것은 관괘가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 분명하다. 용산이씨는 8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다는 것을 임괘에서 말했으니, 마땅히 임괘로부터 세어야 하고 복괘로부터 세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설이 매우 타당하다. 또 「단전」에서 ‘사라져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으니, 관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더욱 분명하다. 관괘로부터 한 번, 두 번 변하여 박괘(☱)가 되고 곤괘(☶)가 되니,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八月其指爲觀卦而言明矣. 隆山李氏曰, 所謂至于八月有凶, 言之于臨, 則當自臨數, 不當自復數. 此說甚當. 且彖曰, 消不久也, 則其指觀而言, 尤明矣. 自觀一再轉而爲剝爲坤, 其非所謂不久乎)”라 했다. 하우현은 「단전」의 언급이 8월이 관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더욱 보충한다고 보고 있다.

정조(正祖, 1777-1800)는 『홍재전서(弘齋全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35) 『집성』. “此恐記者之誤. 八月爲遯始於程子, 却不言三正, 改正乃革命後事, 文王安有豫先改正朔之事耶. 此乃文王意慮所未萌之事, 恐非朱子之說也. 隆山李氏曰, 八月有凶, 當自臨數, 不當自復數. 當數至觀而不當數至遯. 臨觀乃陰陽反對, 消長之常理. 其義甚著, 豈可外引遯卦, 謂周八月哉. 此確論也.”

8월에 대해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첫째, 축월부터 신월까지(8개월) 비괘(☵)가 되는 것이다. 둘째, 자월부터 미월까지 돈괘(☱)가 되는 것이다. 셋째, 인월부터 유월까지 관괘(☶)가 되는 것이다. 만약 반대괘로 논한다면 관괘가 8월이 된다.<sup>36)</sup>

정조가 말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왕응린이 '8월'을 보는 관점이 삼정에 따라 세 가지라고 한 것과 같다. 정조는 자신의 관점이 하력으로 관괘임을 밝히는데, 그 이유는 괘변 중 반대괘(임괘(☶))를 뒤집은 관괘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중섭(尹鍾燮, 1791-1870)은 그의 『경(經)·역(易)』에서 말하기를, “임괘와 관괘는 서로 반대괘이니 「대상전」에서 교민(教民)을 두 괘에서 같이 말하였다. 임괘의 초효와 2효는 반대로 관괘의 5효와 상효가 되어, 2양이 나란히 연결되어 덕을 함께하니 그 말이 다르지 않다. 임괘의 초효와 2효에서는 ‘느껴 임하는 길함’을 말하였고, 관괘의 오효와 상효에서는 ‘나의 삶을 보아 허물이 없는 것’을 말하였다. 임괘는 주인이 안에 있어 4음이 아래에 임하는 것이고, 관괘는 주인이 밖에 있어 4음이 위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잡괘전」에서 ‘혹 함께하고 혹 구한다’라 하였다(臨觀相反, 大象同爲教民. 臨之初二反爲觀之五上, 二陽連比同德, 其辭不殊. 臨之初二曰咸臨之吉, 觀之五上觀生之无咎. 臨主在內以四陰臨於下也, 觀主在外以四陰觀於上也. 故雜卦傳曰, 或與或求)라 했다. 윤중섭은 '8월'을 하력 관괘로 보는데 그 이유로는 임괘와 관괘 모두 「대상전」에서 '교민(教民)'을 말하는 점과 「잡괘전」의 '혹여혹구'를 든다. 이쯤에서 조선 학자들이 삼정을 채택하는 관점의 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삼정과 12벽괘 사이

이상에서 중국과 조선 학자들의 임괘 '8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임괘 '8월'을 택한 이유는 경문에 달이 표시된 곳이 이곳뿐이기 때문이다. 삼정과 12벽괘는 따로 논할 수도 있고 왕부지처럼 12벽괘를 부정하고 삼정만 논할 수도 있지만, 임괘는 12벽괘와 삼정을 함께 논할 수 있는

36) 『弘齋全書』. “八月之說有三. 1. 自丑至申爲否也. 2. 自子至未爲遯也. 3. 自寅至酉爲觀也. 若論反對, 則觀爲八月之卦.”

안성맞춤의 쾌이기도 하다. 그러나 삼정 하나만도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12벽괘가 논란에 뛰어들었으니 복잡해졌다.

삼정과 12벽괘론은 그 출발선이 다르다. 삼정은 순수한 역법(曆法)이다. 12벽괘론은 역(易)에다 역법을 대입시킨 것이다. 역에다 역법을 대입하거나 둘을 혼합하여 논하면 부작용은 없는가? 그 해답을 찾으려면 먼저 역의 궤적과 활동범위를 따라가 봐야 한다. 복희역은 천지 생성과 만물 변화가 집약적으로 망라된 최초의 음양 상징 기호이다. 문왕역(『주역·易經』)은 복희역에서 한 발 나아가 만인의 시름을 달래줄 점서(占書)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후 『역경』은 「역전(易傳)」을 만나 철학서로 재탄생하고, 천문역법을 만나 역법서(曆法書)로 거듭나고, 의학을 만나 의역서(醫易書)로, 음악을 만나 율呂書(律呂書)로, 수학을 만나 역수서(易數書)로, 과학을 만나 과학역(科學易) 등으로 그 지평이 넓어졌다. 어떻게 이처럼 『주역』의 반경이 넓어졌을까? 주희가 이에 대해 적절히 대답했다. 그는 “역은 단지 하나의 빈 물건이다(易只是個空底物事)”(『주자어류』 66권)라 했다. 이는 주희의 탁견이다. 『주역』은 단지 비어 있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모든 것과 만인의 온갖 시름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12벽괘와 삼정론도 예외가 아니다. 선인(先人)들은 괘효사는 하나의 샘플에 불과한 가설(架設)에 지나지 않고 고정된 것이 아니니 계사(繫辭)에 얽매이지 말라고도 했다. 따라서 괘효사에 12벽괘나 삼정이 언급된 곳이 없다 하더라도 이 둘은 역이라는 큰 용광로(空物)에서 융합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조건은 역의 이치, 역리(易理)에 부합해야 한다. 역의 이치는 천지자연의 이치와 다름없다. 삼정과 12벽괘론 속에 천지자연의 이치가 녹아 있기에 이 둘을 『주역』의 테두리에서 논할 수 있다. 이런 역의 지평을 간파했기에 중국에서는 경방을 비롯한 정현, 공영달, 정이천과 주희, 운봉호씨, 왕부지 등이, 조선에서는 권근을 비롯한 송시열, 이익, 정약용, 정조 등이 임괘(☶) ‘8월’을 논했다. 그러나 그 논의는 일치점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12벽괘와 삼정 사이의 장애물—12벽괘는 하력, 삼정은 하운주 삼략—때문이다.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 정현은 은대 주왕이 무도하여 문왕이 경계하기 위해 은력을 주력으로 고쳐서 임괘 ‘8월’은 미월 돈괘(☱)라는 좀 억지스러운 논리를 동원했다. 우변은 방통설이란 신학설로 주력을 주장하고 순상은 「설괘전」 5장으로 설명했다. 공영달은 왕필의 주석에 힘입어 은력을 주장하여 ‘8월’은 신월 비괘(☱)라 했다.



정이천은 주력의 입장에서 '8월'은 복괘(☱)에서 8개월을 센 미월 돈괘(☱)라 했고, 주희는 주력과 하력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으로 논란을 피해 가려 했다. 용산이씨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8월'은 하력으로 유월(酉月) 관괘(☱)라고 주장하는 한편 임천오씨는 확고하게 주력을 주장하였지만 은력을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 양만리나 절재채씨 등은 삼정을 떠나 8호와 경과월 8개월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논하기도 하고, 운봉호씨 등은 복괘와의 관계에서 논하는 설을 소개하기도 했다. 왕부지는 12벽괘 설을 부정하고 다른 관점으로 '8월'을 해석했다.

조선의 경우 송대의 논란이 수입되었지만 접근 양상은 달랐다. 특히 조선역학의 문호를 연 권근은 삼정이나 12벽괘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고 역의 본령인 음양과 역수(易數: 理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필자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 작역자가 처음 연역(演易)할 때에는 12벽괘 등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오직 음양으로 길흉을 점쳤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또 '8월유홍'은 점자(占者)가 점치는 시점에서 8개월 뒤에 홍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권근은 굳이 삼정을 논한다면 문왕의 때가 은대이니 은력을 사용해서 '8월'은 비괘(☱)가 된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과감하게 송대의 관점을 벗어나서 음양으로 '8월'을 바라보는 견해를 제시하는 한편 송대에서 주장하지 않은 은력도 주장했다. 조선 역학이 권근 때부터 독자적인 역학사상을 잉태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이 부분이다. 그것이 유정원에게 이어졌다. 유정원은 여기의 '8월'은 삼정과 무관하고 달수와도 무관한 음양소식의 원리라고 했다. 이와 달리 삼정으로 논한 학자도 상당수 있다. 주력으로는 대표적으로 정약용과 심대운을 들 수 있다. 정약용은 '8월'은 주력의 입장에서 미월 돈괘라고 단정한다. 그는 삼역론(三易論) 중에서 변역론에 입각하여 임괘(☱)의 음양이 반대인 돈괘가 8월이라는 입장이다. 심대운은 복괘에서 세어 8개월째 돈괘를 '8월'이라 하면서, 임괘 2양 때에 돈괘 2음 때를 경계함이 군자의 큰 지혜라고 했다. 은력은 대표적으로 이익을 들 수 있다. 이익은 임괘 2호부터 돈괘 2호까지 합 7호에서 1호 더 나아가 3음의 비괘를 여기의 '8월'이라 했다. 하력은 송시열과 정조를 들 수 있다. 송시열은 기본적으로 하력을 기준으로 유월(酉月) 관괘임을 말하는 한편 임괘의 하체는 태괘(☱)이며 태(兌)는 한가을(正秋)이라는 「설괘전」도 감안했다. 정조는 임괘의 반대괘, 즉 괘를 뒤집은 것으로 '8월'은

관괘라고 했다.

조선 학자들의 관점을 종합해보면 중국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역학사상을 전개함을 알 수 있다. 권근을 거쳐 송시열, 유정원, 이익, 정약용 등의 경우에서 보듯 그들은 독자적인 역학관으로 사소한 것 같지만 예민한 '8월'이라는 문제를 풀려고 했다. 특히 정약용은 변역론으로 주력을 말하고 이병헌은 12벽괘의 새로운 변통론으로 '8월'이 은력이 됨을 말했다. 임괘(☶) '8월'에서 삼정과 12벽괘를 논하는 것이 역학적으로 심오한 원리를 탐구하는 것인지 혹은 역학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들어서 중국과 다른 새로운 논리로 삼정과 12벽괘 사이에 놓인 장애물을 넘으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조선 역학사상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참 고 문 헌

- 『周易』, 庚辰新刊內閣藏板 영인본(『周易傳義大全』, 학민문화사, 2008).
- 『韓國經學資料集成』, 「易經」 上下 37책(성균관대학교 大東文化研究院, 1996).
- 『論語』, 『書經』, 『詩經』, 『春秋』, 『弘齋全書』.
- 『四庫全書』: 『京氏易傳』, 『困學紀聞』, 『誠齋易傳』, 『易緯稽覽圖』, 『王弼周易注』, 『周易鄭康成注』, 『周易註疏』, 『周易集解』, 『春王正月考』, 『漢上易傳』.
- 京房 撰, 최정준 譯註, 『京氏易傳』. 비움과 소통, 2016.
- 료명춘 외 2인 공저, 심경호 옮김, 『周易哲學史』. 예문서원, 2004.
- 왕필 · 한강백 注, 공영달 疏, 성백효 · 신상후 공역, 『譯註 周易正義』. 전통문화연구회, 2014.
- 주희 撰, 성백효 譯註, 『詩經集傳』 上. 전통문화연구회, 2008.
- 채침 撰, 성백효 譯註, 『書經集傳』 上. 전통문화연구회, 2007.
- 來知德 撰, 張萬彬 点校, 『周易集注』 上. 北京: 九州出版社, 2004.
- 王夫之 撰, 이일훈 點校, 『周易內傳』. 北京: 九州出版社, 2004.
- 王弼 著, 樓宇烈 校釋, 『王弼集校釋』. 北京: 中華書局, 2009.
- 林忠軍 著, 『周易鄭氏學闡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 朱伯崑 著, 『易學哲學史』 1권. 北京: 崑崙出版社, 2009.

## 국 문 요약

유가 경전에서 언급되는 월(月建)과 정삭(正月)이 삼정(三正: 하은주 삼대의 책력) 가운데 어느 시대인지 알기 위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삼정은 각각 1개월의 차이가 있다. 『주역』의 경우는 달(月)에 대한 언급이 한 군데 있으니 임괘(臨卦, ䷒) '8월'이다. '8월'이 삼정 가운데 어느 시대인지에 대한 문제는 맹희의 12벽괘론이 수용되면서 논란이 가열되었다.

중국의 경향을 보면 '8월'을 삼정과 12벽괘 및 기타 역리로 접근한다. 후한대에는 주력(周曆)의 입장에서 '8월'을 미월(未月) 돈괘(遯卦, ䷠)라 했고, 당대에는 '8월'은 은력(殷曆)으로 신월(申月) 비괘(否卦, ䷋)라 했다. 송·원대에는 주력으로 미월 돈괘라는 설과 하력으로 유월(酉月) 관괘(觀卦, ䷓)라는 설 및 기타 설로 나누어졌다.

조선의 경우 중국의 역학관에서 탈피하려는 조짐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권근은 삼정이나 12벽괘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고 역의 본령인 음양으로 '8월'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유정원도 '8월'은 삼정과 무관하고 달수와도 무관한 음양소식의 원리라고 했다. 삼정으로 논한 학자 중 주력으로는 정약용과 심대운을, 은력은 이익을 들 수 있다. 하력은 송시열과 정조를 들 수 있다. 이런 조선 학자들은 중국의 역학논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역학사상을 전개한다. 특히 정약용은 번역론으로 주력을 말하고 이병헌은 12벽괘의 새로운 변통론으로 '8월'이 은력이 되는 이론을 제시했다. 권근을 위시하여 이병헌에 이르기까지 임괘 '8월'을 해석하는 이런 새로운 자세에서 조선 역학사상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투고일** 2016. 6. 20.

**심사일** 2016. 8. 1.

**게재 확정일** 2016. 8. 22.

**주제어(keyword)** 삼정(三正, Three kinds of calendars), 12벽괘(12辟卦, Twelve monarchs trigrams), 『주역』 임괘 “8월”(『周易』 臨卦 “八月”, “August” Overseeing I-ching), 임괘(臨卦, Overseeing), 음양(陰陽, Yin-Yang), 돈괘(遯卦, Withdrawal), 관괘(觀卦, Observing), 주력(周曆, the calendars of Chou dynasty), 은력(殷曆, the calendars of Yin dynasty), 하력(夏曆, the calendars of Hsia dynasty)

## Abstracts

### The Argument of Three Kinds of Calendars and Twelve Monarchs Trigrams about “August” Overseeing I-ching in Joseon Dynasty and China.

**Cho, Hie-young**

This paper is an article that explored Three kinds of calendars(三正) and Twelve monarchs trigrams(12辟卦) debate that took place in China and Joseon dynasty(朝鮮) for “August” Overseeing I-ching(『周易』 臨卦 8月)

In China, the trend of the approach to the “August” Overseeing I-ching(『周易』 臨卦 8월) is three styles, that's Three kinds of calendars(三正) and Twelve monarchs trigrams(12辟卦) and others(其他易理). The scholar of Han dynasty(漢代) claims Withdrawal(遯卦) as the calendars of Chou dynasty(周曆). The scholar of Tang dynasty(唐代) claims Obstruction(否卦) as the calendars of Yin dynasty(殷曆). The scholar of Sung dynasty(宋代) claims Withdrawal(遯卦) as the calendars of Chou dynasty(周曆), claims Overseeing(觀卦) as the calendars of Hsia dynasty(夏曆) and others.

The scholar of Joseon dynasty(朝鮮) was the sign to move away from thinking of China. Typically Kwon Geun(權近) saw Three kinds of calendars(三正)과 Twelve monarchs trigrams.(12辟卦) with ancillary issues had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August” Overseeing I-ching(『周易』 臨卦 8月) as Yin-Yang(陰陽).

Jeong(丁若鏞) is particularly telling the calendars of Chou dynasty(周曆) with the mutation of I-ching(變易論), Lee(李炳憲) said that this “August” Overseeing I-ching(『주역』 臨卦 8月) as a makeshift of Twelve monarchs trigrams(12벽괘 변통론). From Kwon Geun to Lee, This attitude can be called a cross-section of the original spirit of Joseon dynasty(朝鮮) outside the Chinese thought.